



해외보험리포트

호주

김윤진, 이소양

Executive Summary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농업형 산업과 금융·보험 및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공존하며 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옴. 호주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단행된 구조 개혁으로 인해 여러 외부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약 30년간 안정적 성장을 보인 유일한 선진국으로 평가됨

2022년 출범한 호주 신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이 초래한 30년 만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Powering Australia'를 표방하며,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및 신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호주 정부가 외국기업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2%이고 보험밀도는 약 2,758 미국 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78%를 차지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순보험료 및 총자산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은 외국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사망보험, 소득보상보험, 완전영구장래보험(TPD) 등 보장성 생명보험만이 판매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보험회사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I

국가 개요 및 경제

1. 국가 개요

- 다문화·다민족 국가인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농수산·광업형 산업과 금융·보험 및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이 공존하며 여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¹⁾
 - 호주 인구 약 2,650만 명 중 29%에 달하는 770만 명이 해외 출생자인 것으로 파악되며, 약 200개국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과 원주민이 다양한 문화, 민족, 언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공존하면서 다문화·다민족 사회를 구성함²⁾
 - 종교는 기독교가 43.9%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이슬람교 3.2%, 힌두교 2.7%, 불교 2.4% 등임
 - 주요 출신 국가는 영국계 33%, 호주계 29.9%, 아일랜드계 9.5%, 스코틀랜드계 8.6%, 중국계 5.6% 등이며, 언어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약 4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됨
 - 호주의 산업구조는 농수산·광업형 산업과 금융·보험,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이 공존하는 양면적 형태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함
 - 호주 전체 GDP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금융, 보험,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수산업과 광업 등 1차 산업이 약 13%를 차지함
 - 특히, 호주는 선진 금융 국가로 호주 달러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화폐이며 운용 펀드액 기준 세계 5위, 주식시장 규모로는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는 2022년 GDP 기준 12위를 차지(세계 GDP의 1.7%)할 만큼 경제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타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에는 이민 정책에 따른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호주의 인구정책에 따라 경제순위가 세계 8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됨³⁾
 - 호주의 출산율은 현재 인구 유지 출산율인 2.0명을 밑돌고 있지만 연간 약 16만 명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100년 4,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1) KOTRA(2021), 『국가지역정보-호주』

2) ABS(2023. 10), "Australia's Population by Country of Birth"

3) Stein Emil Vollset et al.(2020), "Fertility, mortality, migration, and population scenarios for 195 countries and territories from 2017 to 2100: a forecasting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The Lancet

- 호주의 정치 구조는 미국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가 혼합된 형태이며, 행정 구역은 6개의 주(State)와 2개의 준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 주 정부는 주 총독이 영국 국왕을 대리하여 연방과 주를 대표함
 - 호주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안은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하면 법으로서 성립됨

〈표 1〉 호주 주요 국가 지표¹⁾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769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인구	약 2,647만 명
생산가능인구	약 828만 명	고령화 비율	17.1%
소비자물가상승률	7.8%	경제성장률	3.6%
GDP	1조 6,754억 미국 달러	1인당 GDP	64,491 미국 달러
기대 수명(남)	81.3세	기대 수명(여)	85세

주: 1) 기대 수명은 2021년, 경제지표는 2022년, 인구 지표는 2023년 3월 기준임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World Bank Open Data"

- 호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친기업 환경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유치에 확대시킴
 - 호주는 낮은 법인세율,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높은 금융 효율성 및 다수의 자유무역협정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적 연계를 통해 여러 외국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함
 - 호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0년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8.3%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외국인 투자 가치는 약 4조 4천억 호주 달러에 이룸
 - 외국인 최대 직접투자 유치 분야는 광업(34%)이었으나, 2017~2021년 5년간 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종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산업은 과학 및 기술(17% 증가) 분야와 금융 및 보험업(12% 증가)이었음
 -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기업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 및 보험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함⁴⁾

4) 이대원(2023), 『외국기업 호주 금융 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 완화』, KIPA Regulatory Trends

2. 경제

- 호주 경제는 1991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한 이후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에도 경기 침체 없이 위기를 벗어남으로써 선진국 중에서 약 30년 동안 안정적 성장을 이룩한 유일한 국가임⁵⁾
 - 호주는 1980년대까지 높은 교역장벽과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다른 OECD 국가 대비 낮은 생산성과 소득수준을 경험함
 - 호주 정부는 낮은 성장률을 극복하고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2000년대 이후 호주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됨(〈표 2〉 참조)⁶⁾
 - 1980~2000년대 호주의 경제개혁은 크게 3가지 측면인 시장 개방, 시장경쟁 강화, 거시경제 펀더멘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 내부적인 개혁과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호주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투자 확대로 유입된 자금이 부동산, 금융 등 서비스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호주 경제성장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대내외 경제개혁 이외에 호주 경제가 2000년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이주민 증가에 따른 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인구성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교역 증대 트렌드, 균형 있는 산업 간 발전 등이 있음⁷⁾

〈표 2〉 호주 주요 경제정책 변천

시기	총리(당)	경제 상황	주요 정책 내용
1983~1991	밥 호크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오일쇼크 영향으로 경기불황 • 1987년 세계 증권시장 불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할 ‘캠벨조사위원회’ 발족 • 캠벨위원회는 외환 자유화, 금융시장 규제 완화, 진입 제한 철폐, 관세 제도 폐지 등 건의안 제출 • 금리 자유화 • 변동환율제 도입 시도 • 공기업의 민영화(대규모 부실 은행 민간에 매각) • 저소득층 재정지원 확대,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Medicare) 도입

5) Parliament of Australia(2019), “27 years and counting since Australia’s last recession”; 윤재성(2017),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나이스신용평가 NICE Issue Special Report』

6) IMF(2015. 10), “Structural Reforms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s: Country Cases”

7) The Atlantic(2018. 12), “Why Hasn’t Australia Had a Recession in Almost 30 Years?”

〈표 2〉 계속

시기	총리(당)	경제 상황	주요 정책 내용
1991~1996	폴 키팅 (노동당)	• 경기침체 • 대공황 이후 실업률 최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적 재정정책 • 정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One Nation' 발표 • 고정환율제 폐지 • 연금제도 강화(Superannuation의 시작) • 대형 국영기업의 독점력을 제한하는 경쟁 정책 도입 • 캠벨위원회 이후 '왈리스 조사위원회' 발족 • 관세 인하 건의
1996~2007	존 하워드 (민주당)	• 키팅 정부의 큰 재정적자 • 보험회사 HIH 파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왈리스 위원회가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및 공시제도 강화에 대한 건의안 제출 • 부가가치세 도입, 개인 소득세 감축 • 연금제도 개선: 정상 연금 수령 비과세화 • 금융규제감독 쌍봉기구(Two peaks) 채택 • 보험회사 HIH 파산 관련 '왕립 조사위원회' 발족
2007~2010	케빈 러드 (노동당)	• 2008년 금융위기 • 인플레이션 • 경기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524억 호주 달러 이상의 국가 부양책 도입 • 자원초과이익세 도입 시도 • 탄소세 신설
2010~2013	줄리아 길라드 (노동당)	• 러드 정권 자원초과이익세에 대한 광산업계 갈등 • 2008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경제 성장세 진입 • 가뭄·산불 등 기후변화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애보험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도입 • 자원초과이익세(Mineral Resource Rent Tax) 도입 → 2012년 7월부터 30%의 세금이 광산산업에 적용, 세수입에 따라 법인세 감축, 사회기반시설 건설, 연금 등에 사용 계획 발표·논의 지속 •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탄소세 도입 논의 구체화
2013~2015	토니 애벗 (자유당)	• 재정수지 적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dget emergency: 예산흑자회복을 위한 국가감사위원회 설립 • 중국, 일본,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북호주 개발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백서 제작 • 중소기업 부양책
2015~2018	맬컴 턴불 (자유당)	• 자원 가격과 시중 이자율 상승 • 소비심리 악화 • 재정수지 흑자전환 지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출 감소 • 사회안전망 및 복지 지출 건전성에 대한 조치를 통해 세입 확대 계획
2018~2022	스콧 모리슨 (자유당)	• 1991년 이후 첫 경기침체 • 코로나19 경제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발표 • 코로나19 경제적 지원

자료: Australian Treasury Working Paper(2018.10), "Australia's Experience with Economic Reform"; Parliament of Australia; 홍승연 외(2012), 『호주의 재정 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선비즈 기사(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3/02/16/2003021670183.html, 2023년 12월 22일 접속)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그러나 호주 경제는 2020년 대규모 산림화재에 이어 코로나19 충격,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으로 30년 만에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둔화 및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호주는 2020년 1분기 -0.3%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 -7%로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였음
 -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경험한 호주 경제구조를 점검하며 1차 산업에 치중된 수출구조와 높은 대외자금 조달,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호주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함
 - 2021~22년 호주 전체 수출액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수출 비중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호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치(2022년 기준 7.8%)를 기록하자 호주중앙은행(RBA)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12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으며(2023년 11월 기준 4.35%),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신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2022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Powering Australia'를 표방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수소, 신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호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⁸⁾
 - 자유당 소속 스콧 모리슨 총리 집권 당시 2019년 산불 사태와 2022년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 협정 체결로 국내외 리스크가 확대되자, 2022년 노동당이 호주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생계비 부담 완화'와 '기후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앤서니 알바니즈가 31대 총리로 취임함
 - 신정부는 호주를 저배출 기술을 주도하는 세계적 리더로서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 6월 2030년까지 호주의 탄소중립 목표 기준을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였고, 탄소제로 목표를 2050년으로 세움
 - 2023년 3월 기후 대응 정책인 세이프가드 매커니즘(Safeguard mechanism) 개혁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미래 에너지원 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및 민간기업 인프라 투자 촉진이 기대되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한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 및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2년 8월에는 첫 번째 전기자동차 고위급회담(Electric Vehicle Summit)을 개최하고 전기차 활용 증진을 위한 연료 효율 기준 개선안 등을 소개하기도 함

⁸⁾ KOTRA(2023), 『해외시정뉴스-호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5), 『2022년 호주 총선 결과와 새 정부의 정책 전망』

II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호주의 총 9개 입법부(연방 입법부, 6개 주 입법부, 2개 준주 입법부)중 일반 보험 관련 입법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State)와 준주(Territory)는 지방정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산재보험과 불법행위 등을 주재함
 - 연방정부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보험 관련 법안은 호주 건전성 감독기구(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이하 'APRA'라 함) 또는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ASIC'라 함)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고 연방 재무부(Commonwealth Treasury)에 의해 검토됨
 - 재무부로부터 제출된 보험법안은 하원에서 3번의 독회(Reading)를 거쳐 상원에 전달되고, 상원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함
 -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총독의 승인을 받아 법령(Act of Parliament)으로 채택되며, 주와 준주에서의 입법 절차도 연방정부의 입법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
- 호주의 보험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s)은 호주 건전성 감독기구(APRA)에서 시행하는 규제 및 정책 지침(Guidance notes)을 준수해야 함
 - APRA는 1973년 제정된 보험법(Insurance Act)과 1998년 제정된 호주 건전성 규제법(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감독권한을 지님
 - APRA가 건전성 기준(Prudential Standards)에 새로운 보험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험 및 연금 산업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논의가 의회에 제출되어 28일 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법적 규제로서 지위를 획득함
 - 정책 지침은 보험회사 및 퇴직연금기금이 보험 규제 내에서 지켜야 할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됨

- 호주에서는 의무보험 외에 보험료율 기준과 관련된 규제는 없으나, 2010년 제정된 경쟁 및 소비자보호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보험료 책정은 불법으로 간주함
 - 호주의 사적의료보험(Private Medical Insurance; PMI)과 같이 고도의 규제가 필요한 부문에서의 보험료율 변경 사항은 관련 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

〈표 3〉 호주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1973	• 보험법(Insurance Act) : 보험시장에 진입하려는 보험자가 갖춰야 할 최소자본 및 건전성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
1986	• 보험계약법(Insurance Contracts Act) : 생명보험 및 PMI(Private Medical Insurance)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동등한 계약을 위한 규제 마련 및 기계보험, 자동차보험, 질병보험과 같은 개인보험에 대한 양식을 포함하여 보험회사 직속 계약 내용을 규정
1992	• 보험인수합병법(Insurance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 호주 보험회사의 인수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시
1995	•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 생명보험에 대한 주요 법규이며, 생명보험 영업을 하려는 모든 회사가 해당 법규에 따라 생명보험업자로 등록하도록 함
1998	• 호주건전성규제법(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 호주 건전성감독당국 APRA 설립 → 금융건전성 감독
1999	• 금융개혁법(Financial Sector Reform Act)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IC 설립 → 금융행위 감독
2001	• 기업법(Corporations Act) : 금융상품 및 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보험 중개 영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함
	•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 ASIC의 규제 책임 정도를 규정함
2008	• 손해보험개혁법(General Insurance Reform Act) : 1973년 보험법을 개정하여 감독,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기준 등을 개선함
	• 금융체계입법개정법(Financial System Legislation Amendment Act - Financial Claims Scheme and Other Measures) : 손해보험 가입자 보호 체계를 마련
2017	• 기업개정법(Corporations Amendment Act) : 2001년 제정된 기업법을 개정하여 금융자문업자(Financial advisers)의 직업 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을 상향
2019	• 재무법개정에 대한 법률(Treasury Laws Amendment Act - Design and Distribution Obligations and Product Intervention Powers) : 소매금융 서비스제공업자에게 상품 설계 및 판매 채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며, ASIC가 금융상품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표 3〉 계속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법개정에 대한 법률(Treasury Laws Amendment Act - Putting Members' Interests First) : DC형 퇴직연금에서 25세 이하 가입자와 퇴직연금 계정 잔액 6,000 호주 달러 이하 가입자에 대한 디폴트 옵션을 해제하고 디폴트옵션과 반대 개념인 active opt-in 제도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법개정에 대한 법률(Treasury Laws Amendment Act - Protecting Your Superannuation) : DC형 퇴직연금에서 16개월 동안 활동이 없는 계정을 제도에서 퇴출하고, 퇴직연금 계정 잔액이 6,000 호주 달러 이하인 계정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연 3%로 제한함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개혁법; 2019년 발간된 Hayne 왕립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대응(Hayne Royal Commission Response) : 왕실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금융산업 소비자 보호 및 직업 기준 향상을 위한 법안을 통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규제평가기관에 관한 법률(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 Act 2021 and 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 - Consequential Amendment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ct) : 금융규제기관 평가 당국인 FRAA(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를 설립하여 호주의 2개 금융 감독기관인 APRA와 ASIC을 감독하도록 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호주는 1998년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하여 APRA이 금융기관 건전성을 감독하고 증권투자위원회인 ASIC가 금융기관·시장을 감독하며, 2022년 설립된 독립 금융감독평가 당국 FRAA(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가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감독하도록 함
 - APRA는 보험업 인허가와 보험 및 퇴직연금에 대한 건전성 규제 책임을 맡고 있으며, ASIC는 보험 중개업 인허가, 상품공시기준, 소비자 불만 접수 등 보험시장의 금융 행위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감독함
 - 규제 책임의 범위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 공제회와 특정 비영리 지주회사까지 포함함
 - 이러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경험했던 위험과 압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높은 신뢰를 얻음
 - 그러나 2019년 Hayne 왕립위원회(Hayne Royal Commission)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공개조사⁹⁾를 통해 APRA와 ASIC에 감독기구 운영 투명성과 금융행위 감독의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두 기구를 감독할 제3의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립을 촉구함

9) 해당 조사는 은행, 퇴직연금, 금융서비스 산업 전반의 지위남용 등에 대해 왕립위원회가 착수한 조사로 2019년 2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고, Hayne 왕립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만연해 있던 금융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APRA와 ASIC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행위 개선을 위한 다수의 조치를 제안함

- 2021년 제정된 금융규제평가기관에 관한 법률(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 Act 2021 and 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에 의해 FRAA가 설립됨

가. 호주 금융감독 관련 최근 변화

- APRA는 2021년부터 모든 보험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위험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건전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호주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역량평가 보고서(Capability Review) 권고사항에 따라 금융 산업 부문별로 감독 조직을 재편성함
 - 기존의 보험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모델인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와 SOARS(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가 2021년 SRI(Supervision Risk and Intensity) 모델로 통합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됨
 - 보험회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건전성 평가는 선임계리사가 담당함
 - 역량평가 보고서(Capability Review)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APRA는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퇴직연금 사업 감독 부문을 신설함
 - APRA는 2025~26년까지의 4개년 계획을 통해 공급망 파괴, 인플레이션, 사이버 리스크를 산업의 대응 과제로 정의하였고, 향후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 저하 요인으로 고금리, 기후변화, 소송위험 등을 꼽음
- 보험회사들은 호주 회계기준원 AASB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공시정보를 APRA에 제출해야 하며, 2023년부터 IFRS17 회계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도입됨에 따라 APRA는 AASB17 기준에 맞춘 회계 공시 프레임워크를 개정하여 발표함
- 2015년 역량평가 보고서(Capability Review) 권고에 따라 ASCI의 규제기관으로서 감독역량 향상을 위한 공·사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ASCI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ASCI의 감독 활동 범위가 확대됨
 - 예를 들어, 2019년 발의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The Treasury Laws Amendment Act 2019'는 ASIC가 소매금융상품 설계 및 판매 채널과 관련된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나.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호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APR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라이선스 두 가지로 구분되나 특정한 경우 복합 라이선스를 가진 보험회사도 존재함
 - 보험산업 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책임회사나 상호보험회사로 제한되며, 새로운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중 하나의 라이선스를 받게 됨
 - PMI(Private Medical Insurance) 사업자는 생명·손해보험 법인과 별도로 라이선스 승인을 받아야 하며, PMI 상품은 라이선스를 받은 PMI 전문 보험회사만 판매할 수 있음
 - 개인상해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모두 판매될 수 있음
 - 생명·손해보험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에 의해 소유될 수 있으나 반드시 분리된 법인으로 존재해야 함
- 보험회사로 승인받기 위한 사업자는 소유권,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데이터 및 시스템에 관련한 조건에 따라 APRA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함
 - 보험회사로 승인받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 주식은 15%로 제한되며, 그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부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전성 기준(Prudential standards)이 제시한 거버넌스 조건에 따라 이사회와 내부 감사를 위한 준법감시 위원회, 선임계리사 등을 포함하여 조직 구성이 가능해야 하고 각 구성원이 조직 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보험회사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ALM(Asset-Liability Management), 운영리스크, 전략리스크 등 보험사업과 관련한 전반적 위험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보험회사 운영에 요구되는 적절한 데이터 보유 및 관리 역량과 정보·회계시스템 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 보험회사 최저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 인허가를 받은 생명보험회사의 최저 납입자본금은 1,000만 호주 달러, 손해보험회사는 500만 호주 달러이며, 각 회사는 건전성 기준에 명시된 최소요구자본을 초과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할 것이 요구됨
- 호주는 2001년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HIIH의 파산을 경험하며 일찍이 건전성 감독 체계를 개혁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후 자체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평가·모니터링함

- 2021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SRI(Supervision Risk and Intensity) 모델은 회복탄력성, 지배구조, 책무성, 운용성과(퇴직연금사업자 해당), 사이버 보안 등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 건전성 평가에 반영함
 - APRA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를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맞춘 감독과 규제를 수행함
- 호주 보험회사들을 위한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프레임워크는 LAGIC(Life and General Capital Standard)하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건전성 기준 Prudential Standard LPS 110 Capital Adequacy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 적정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CAAP) 시행, 건전성 감독 기준과 회사 내부 건전성 기준에 적합한 최소 요구자본 보유 및 관련 정보 공시, APRA의 자본 조정 요구에 대한 시정 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됨
 - ICAAP는 건전성 기준이 제시하는 세부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하고, 보험회사의 규모, 운영 복잡성, 사업 구성요소 등을 모두 반영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PCR(Prudential Capital Requirement)로 불리는 최소 요구 자본은 보험위험, 자산 위험, 자산집중 위험, 운영위험을 반영해 산출해야 하며, APRA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내부 산출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두 방법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함
 - 내부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BBB' 등급에 준하는 최소 디폴트 위험 0.5%가 한 회기 동안 적용되도록 산식을 만들어야 함
 - PCR을 위한 규제 자본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과 유사하게 Tier 1은 기본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자본, Tier 2는 추가적인 자본 완충을 위한 보완자본이 포함됨

라. 소비자보호 규제

- 호주에서는 2008년 손해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FCS(Financial Claims Scheme)가 마련되었고, 이와 연관된 법안인 The Financial Claims Scheme Levy Act 2008에 따라 파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됨
- 손해보험회사의 지급 불능 상태가 결정되어 재무장관이 FCS 작동을 요청하면, 일차적으로 APRA가 보험가입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보험회사를 청산 상태에서부터 회복하는 과정을 거침
 - 위의 방법을 통해 보험가입자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급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함
 - 타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부담금 기준은 원수보험료 기준 최대 5%로 제한함

- 기업법(The Corporate Act 2001)은 모든 금융서비스 기업이 소비자 분쟁에 대한 내부 처리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과 ASIC가 승인한 외부 분쟁 해결 기관에 소속될 것을 요구함
 - 2021년 ASIC는 금융개혁(Hayne Reform)의 일부로서 더욱 철저하고 선제적인 내부 소비자 불만 처리 요건을 도입함
- 2018년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CIO(Credit and Investment and Ombudsman), SCT(Superannuation Complaints Tribunal) 등을 모두 합병한 외부 분쟁 해결을 위한 단일체 AFCA(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가 출범함
 - AFCA는 개인 소비자 불만 및 소기업의 분쟁을 조정하여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경우 최대 1백만 호주 달러까지 보상하고, 연금 관련 분쟁에 대한 보상금은 월 평균 8700~13,400 호주 달러까지 보상함
 - 전신 IOS(Insurance Ombudsman Service)와 달리, AFCA는 보험 분쟁 가이드라인 기준에 엄격한 적법성을 적용하기 보다는 공정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즉, 보험회사가 분쟁에 대하여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했다 하더라도 AFCA의 기준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AFCA 출범에 따른 새로운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으로 보험회사들은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했으나, AFCA는 보험소비자 민원 증가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청구 서비스 질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함
- 이외에도 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2016~2017년 보험인수 및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산업 규약을 발표하였고, 2023년에는 동 규약을 발전시켜 재무적 어려움, 정신 질환 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조함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법인은 현지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자회사, 지점 형태로 호주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규제 당국에 허가를 받은 미국 보험회사만 지점 설립이 가능함
 - 손해보험회사의 지점 설립을 위해 외국 보험회사의 호주 내 사업 영위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며, 동 대리인은 호주 내 거주자 이거나 호주 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특정 규모 이상의 외국 자본의 진입은 사전에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의한 승인이 필요함

- 미국, 칠레, 일본, 한국,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 투자자일 경우 교역 조건에 따라 자산규모 약 12억 호주 달러 이상의 현지 회사 지분 보유가 허용되며, 이외에 국가의 투자 승인 한도는 2억 8천만 호주 달러임

바. 보험회사 투자 규제

- 호주 보험사업자 투자 규제의 공통 사항으로는 보험 부채 가치에 동등한 수준의 자산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외 투자 규제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PMI 보험 회사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됨
 -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투자 규제는 거의 없으나,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준비금(Technical reserve)은 채권과 같은 이자부 증권에 투자하고 주주 배당을 위한 자금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활용함
 -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금을 APRA의 승인 없이 자회사를 제외한 관련 회사에 투자할 수 없으나, 자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명보험회사와 관련된 상장회사의 보통주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함
 - PMI 전문 보험회사는 건전성 기준(Prudential Standards) HPS 110의 자본 적정성 요건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본관리 기준(투자 목적, 자산 배분 한도, 자산 집중도 제한)이 제시하는 투자 규칙에 따를 것이 요구됨

사. 의무보험

- 2023년 10월 Building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23 법안 개정 초안이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에 접수되면서, 10년 담보책임보험(Decennial liability insurance)이 뉴사우스웨일즈 의무보험으로 도입될 예정임
 - 10년 담보책임보험이란 건축물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험으로, 동 법안은 10년 담보책임보험을 스트라타 제도(Strata Scheme)¹⁰⁾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함
 - 10년 담보책임보험 의무화로 인해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¹⁰⁾ 스트라타(Strata)는 여러 개로 분할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하나의 건물 또는 대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이는 Strata Scheme(스트라타 제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4〉 호주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내용
사망 및 신체상해 보장을 위한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Green slip’으로, 다른 주에서는 CTP(Compulsory Third Party)라고 불리며, 호주 내 모든 주와 준주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제 3자의 사망, 신체상해 배상 책임을 무제한으로 보장함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호주에서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제공되기보다는 보험증권을 통해 제공되며, 모든 주와 준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유류오염에 대한 선주의 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선주는 소유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 발생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항공 승객 책임보험	민간항공법(운송자 배상책임)에 따라, 항공료를 지불한 모든 호주 민간 항공사 승객에게 의무보험으로 제공되며 승객의 항공 탑승으로 인한 사망, 신체상해, 수하물 손해 등에 대해 보장함
인공위성 및 로켓 발사 운영사 책임보험	인공위성 및 로켓발사에 대한 우주개발법이 2018 제정된 이후 이와 관련한 의무보험 규칙이 2019년부터 시행되었고, 동 보험은 제3자 책임에 대한 최소보장금액을 1억 호주 달러로 규정함
건축업자 보증보험	태즈매니아와 북부 지역을 제외한 호주 모든 주에 적용되는 의무보험으로, 주거용 건축업자는 완공 후 발견된 결함 및 건축업자의 사망, 실종, 파산에 따른 건축 중단 시 발생하는 손해로부터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 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 건축업자 보증보험은 건축 기간을 포함하여 비구조적 결함에 대해 2년, 구조적 결함에 대해 6년간 보증함
뉴사우스웨일즈 스트라타 건축 결함 채권	2018년 이후 체결된 스트라타 건축물 계약 건에 대해 건축 개발자는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가의 2%에 해당하는 결함 보증 채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최종 건축물 검사 보고서 발행 완료 이후 60일 또는 건축 완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
주거용 스트라타 보험	주거용 스트라타 보험은 아파트 블록과 같은 주거 시설의 구조 또는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스트라타 소유권자 또는 아파트 관리 단체의 재산 피해를 보장함
광산 운영사 공적 책임보험	2021년 1월 발효된 남호주 광산 규정에 따라, 광산 운영자는 사업 운영 범위 및 성격에 적합한 보상 한도를 갖춘 공적 책임보험을 마련해야 함
전문직 배상보험	보험중개인과 같은 경우는 연방법에서,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주(State)법에서 전문직 배상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률 협회와 같은 대부분의 전문직 협회에서는 전문직 배상보험 가입을 전문가 자격증 취득의 조건으로 삼고 있음
457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호주는 457 비자 소지자(임시 근로 허용 비자)와 그 가족의 입국 조건으로 상해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함. 이를 파견근로자(Inpatriate) 의료 비용보험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동 보험은 손해보험, 건강급여기관, 또는 PMI 전문보험회사로 승인된 보험사업자에 의해 제공됨
임상시험 책임보험	빅토리아(VIC), 호주 수도 준주(ACT) 및 뉴사우스웨일즈(NSW)의 공중 보건 기관은 임상 시험 후원자에게 임상 수행 조건으로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APRA가 승인한 보험회사 또는 Standard & Poor’s 신용 등급이 A- 이상인 해외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해야 함
설계 및 건축 전문가 보험	2020년 6월 통과된 Design and Building Practitioners Act 2020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건물 결함에 대한 법적 배상 의무를 뉴사우스웨일즈의 건축업자, 설계자, 자재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에게 부과하고, 이에 따라 설계 실무자, 건축 실무자 및 전문 엔지니어는 자신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을 지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III

보험시장 현황

1. 전체 보험시장 현황

- Swiss Re에 따르면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세계 보험시장의 1.1%를 차지하며 세계 14위의 보험 시장 규모를 기록함
 - 2022년 호주 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는 718억 미국 달러로 한국 보험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며, 아태 선진시장에서는 일본(4위), 한국(7위), 대만(11위) 다음으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2022년 호주 생명보험시장은 세계 보험료의 0.6%를 차지하여 세계 24위의 규모를 보여 주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은 세계 보험료의 1.4%를 차지하여 세계 10위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호주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4.2%이며 보험밀도는 2,758 미국 달러로, 아태 선진시장 중에서 중하위에 위치하고 있음
 - 호주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아태 선진시장 중에서 6위를 차지하여 뉴질랜드(3.8%)와 유사하며, 보험밀도는 아태 선진시장 중에서 5위를 차지하여 일본(2,690 미국 달러)과 비슷함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침투도는 각각 0.9%와 3.3%이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밀도는 각각 609 미국 달러, 2,140 미국 달러임

〈표 5〉 아태 선진국의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2년)

(단위: %, 백만 미국 달러, %, 미국 달러)

구분	세계순위	점유율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일본	4	5.0	337,812	8.2	2,690
한국	7	2.7	182,846	11.1	3,541
대만	11	1.3	86,475	11.4	3,662
호주	14	1.1	71,805	4.2	2,758
홍콩	15	1.0	68,767	19.0	9,159
싱가포르	19	0.7	46,984	9.2	7,563
뉴질랜드	43	0.1	9,067	3.8	1,768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3), "World insurance", sigma 3/2023

-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비중이 각각 22.1%, 77.9%로 손해보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주 생명보험업 원수보험료가 2015년부터 6년 동안 감소하였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전체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의 52.8%에서 2022년에는 22.1%로 축소됨
 -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약화, 시장금리의 하락 등이 생명보험업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함¹¹⁾
 - 호주 손해보험업 원수보험료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보험산업 대비 비중이 2014년 47.2%에서 2022년 77.9%로 상승함

〈표 6〉 호주 보험산업 업권별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20	2021	2022
생명보험업	62,327(52.8)	58,139(50.2)	50,695(45.9)	21,187(23.2)	21,358(22.1)	22,868(22.1)
손해보험업	55,728(47.2)	57,701(49.8)	59,807(54.1)	70,165(76.8)	75,307(77.9)	80,716(77.9)
전체	118,055	115,840	104,443	91,352	96,665	103,584

주: 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 호주 생명보험시장은 1990년대부터 저축성보험이 퇴직연금¹²⁾으로 대체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호주 현지 보험회사가 외국 보험회사에게 매각되면서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함
- 현재 호주 보험산업은 전반적으로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2022년 하반기 연간보험료 기준으로 호주 생명보험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임
 - 다만,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호주 손해보험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와 현지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비슷함

11) Swiss Re(2020), "Advanced Asia-Pacific", sigma extra 4/2020; PWC(2017), "Future of Life Insurance in Australia: Profitable growth in challenging times"

12) 호주 퇴직연금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부터 강제 가입 제도로 도입됨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2년 기준 호주 생명보험시장 순보험료는 228억 호주 달러이며, 순보험료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

- 2022년 기준 호주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234억 호주 달러이며, 세후 이익은 4억 호주 달러를 기록함
- 한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 생명보험시장의 순보험료 성장률은 같은 기간 실질 GDP 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표 7〉 호주 생명보험 순보험료, 총자산, 세후 이익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순보험료	금액	40,364	30,276	21,144	21,013	22,834
	성장률	-4.0	-25.0	-30.2	-0.6	8.7
총자산	금액	222,358	202,585	130,220	132,017	123,380
	성장률	-4.3	-8.9	-35.7	1.4	-6.5
세후 이익	금액	583	-362	-110	1,161	407
실질 GDP 성장률		2.7	1.8	-6.7	6.1	3.4

자료: APRA(2023), "Quarterly life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세계은행 자료

○ 상품별 연간보험료 비중은 사망보험, 소득보상보험, 완전영구장애보험(TPD), 중대질병보험이 96.5%로서 대부분을 차지함¹³⁾

- 2022년 하반기 연간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은 사망보험이 33.5%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소득보상보험(31.8%), 완전영구장애보험(22.1%), 중대질병보험(9.1%) 순임
 - 2020년 하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 사망보험의 비중은 1.1%p 감소하였으며, 소득보상보험의 비중은 2.1%p 증가하였고, 완전영구장애보험과 중대질병보험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2020~2022년 전체 대비 장래보험의 비중은 2%대를 유지하였음

¹³⁾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층의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2층의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부터 의무가입 제도로 전환되어 호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층의 개인연금은 우리나라의 개인형 IRP와 유사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자발적 기여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형태를 의미함. 호주 APRA에서 허가받은 생명보험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을 취급할 수 있음. 호주 생명보험회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연금기능이 있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표 8〉 호주 생명보험 상품별 연간보험료¹⁾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사망보험	금액	5,617	5,874	5,917	6,033	6,004	6,087
	비중	34.6	35.3	34.5	34.1	33.8	33.5
소득보상보험 ²⁾	금액	4,835	5,031	5,261	5,490	5,583	5,787
	비중	29.8	30.2	30.7	31.1	31.4	31.8
완전영구장애보험 ³⁾	금액	3,514	3,476	3,656	3,860	3,892	4,019
	비중	21.6	20.9	21.3	21.8	21.9	22.1
중대질병보험	금액	1,504	1,532	1,580	1,599	1,625	1,652
	비중	9.3	9.2	9.2	9.0	9.1	9.1
장례보험	금액	455	454	451	445	439	437
	비중	2.8	2.7	2.6	2.5	2.5	2.4
기타 생명보험 ⁴⁾	금액	320	287	264	242	223	209
	비중	2.0	1.7	1.5	1.4	1.3	1.1
합계	금액	16,246	16,654	17,128	17,670	17,765	18,19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연간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위험보장을 위해 1년 동안 수취한 영업보험료를 의미함

2) 소득보상보험은 개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형 소득보상보험을 의미하며,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애로 가입자가 일할 수 없는 동안에 기존 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상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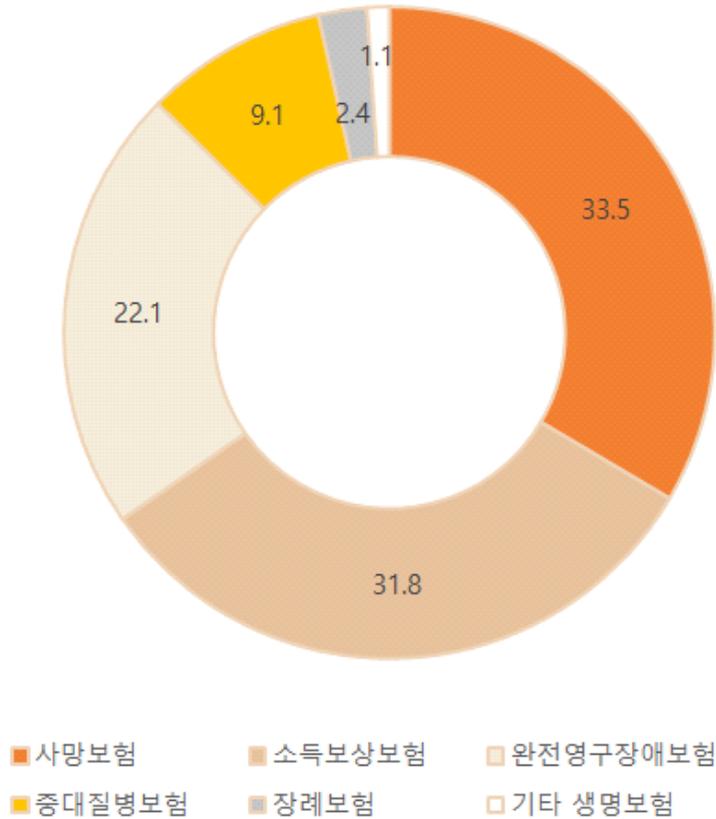
3) 완전영구장애보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기금에 디폴트 형태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의미하며, 이 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로 장애를 입어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을 가입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4) 기타 생명보험은 상해보험, 소비자신용보험 등이 있음. 소비자신용보험은 사망 등의 보험사고로 인해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상품임

자료: KPMG(2023), "Life Insurance Insights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3/10/life-insurance-insights.html>)

〈그림 1〉 호주 생명보험 상품별 연간보험료 비중(2022년 하반기)

(단위: %)



자료: KPMG(2023), "Life Insurance Insights 2023" (<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3/10/life-insurance-insights.html>)

- 호주 생명보험시장에는 2022년 기준 24개 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상위 4개 보험회사인 TAL Life, AIA Australia, Zurich Australia, MLC Limited는 모두 외국 보험회사임
 - 2022년 하반기 연간보험료 기준 TAL Life, AIA Australia, Zurich Australia, MLC Limited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6%, 18.0%, 14.4%, 10.4임
 - TAL Life는 2011년에 일본 Dai-ichi Life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2022년 8월에 Westpac Life Insurance Services Limited를 인수하여 회사명을 TAL Life Insurance Services Limited로 변경함
 - MLC Limited는 2016년에 일본 Nippon Life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MLC Wealth Holdings Limited의 라이선스하에 MLC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MLC Wealth Holdings Limited의 자회사가 아님
 - 생명보험시장 상위 10위에 진입한 현지 보험회사인 QInsure Limited, ClearView Life Assurance, NobleOak Life는 2022년 하반기 연간보험료 기준 각각 3.3%, 1.8%, 1.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표 9〉 호주 생명보험회사별 연간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순위	회사명	2022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성장률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1	TAL Life ¹⁾	6,114	33.6	5,820	32.9	5.1
2	AIA Australia	3,267	18.0	3,296	18.7	-0.9
3	Zurich Australia ²⁾	2,611	14.4	2,420	13.7	7.9
4	MLC Limited	1,894	10.4	1,855	10.5	2.1
5	Resolution Life Australasia ³⁾	1,370	7.5	1,411	8.0	-2.9
6	MetLife Insurance	913	5.0	899	5.1	1.6
7	QInsure Limited	594	3.3	578	3.3	2.9
8	Hannover Life Re of Australasia	423	2.3	559	3.2	-24.3
9	ClearView Life Assurance	325	1.8	297	1.7	9.4
10	NobleOak Life	295	1.6	242	1.4	22.0
	합계	18,190	100.0	17,670	100.0	2.9

주: 1)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TAL Life의 보험료는 자회사인 TAL Life Insurance Services Limited의 보험료를 포함함

2) 2021년 하반기 Zurich Australia의 보험료는 OnePath Life의 보험료를 포함함

3) Resolution Life Australasia의 전신은 AMP Life임

자료: KPMG(2023), "Life Insurance Insights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3/10/life-insurance-insights.html)

○ 호주에서는 생명보험시장이 단체보험시장과 개인보험시장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개인보험시장에서는 2019년 기준 독립투자자문업자(IFA)가 절반 이상을 주도함

- 호주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퇴직연금 기금(슈퍼애뉴에이션 펀드)을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퇴직연금 기금 등이 제공하는 단체보험이 전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임¹⁴⁾
 - 대부분 퇴직연금 기금은 사망보험, 완전영구장애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을 제공하며,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동으로 가입하지만 이러한 생명보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¹⁵⁾
- 독립투자자문업자 채널 외에도 개인보험시장에서는 직접판매 채널(22.0%), 전속대리인 채널(13%), 방카 슈랑스 채널(10%)이 활용되고 있음
 -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생명보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퇴직연금 기금이나 독립투자자문업자 채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접판매 채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¹⁶⁾

¹⁴⁾ KPMG(2023), "Life Insurance Insights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3/10/life-insurance-insights.html)

¹⁵⁾ Real Insurance, "Life insurance with super vs direct vs via broker"(https://www.realinsurance.com.au/life-insurance/super-direct-broker)

¹⁶⁾ Real Insurance, "Why buy Life Insurance direct from an Insurer?"(https://www.realinsurance.com.au/life-insurance/insurance-matters/life-insurance-direct)

〈표 10〉 호주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¹⁾ 변화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독립투자자문업자	45.0	48.0	51.0	53.0	55.0
직접판매 ²⁾	18.0	15.0	21.0	22.0	22.0
전속대리인	15.0	15.0	15.0	14.0	13.0
방카슈랑스	22.0	22.0	13.0	11.0	10.0

주: 1) 생명보험 신계약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접판매는 보험회사 개설하는 콜센터, 웹사이트, 지점, 쇼핑몰에 위치한 컨셉스토어 등을 포함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호주 생명보험업의 자산운용은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22년 자산운용 구성비는 채권(73.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식(19.5%), 부동산(5.5%), 기타 자산(1.1%) 순임
- 2018년과 비교할 때 생명보험업의 운용자산 구성비는 채권 비중이 증가하고 주식 비중이 감소한 반면, 부동산과 기타 자산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표 11〉 호주 생명보험업 운용자산¹⁾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	금액	80,388	77,098	74,318	75,059	70,792
	구성비	41.2	43.9	72.7	73.0	73.9
주식	금액	103,703	90,507	21,771	20,692	18,689
	구성비	53.2	51.5	21.3	20.1	19.5
부동산	금액	10,279	7,204	5,603	5,900	5,287
	구성비	5.3	4.1	5.5	5.7	5.5
기타 자산 ²⁾	금액	665	1,009	540	1,140	1,056
	구성비	0.3	0.6	0.5	1.1	1.1
합계	금액	195,035	175,818	102,232	102,792	95,8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운용자산은 현금과 예금을 포함하지 않음

2) 기타 자산은 대출, 신탁 등 금융상품을 포함함

자료: APRA(2023), "Quarterly Life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June 2023"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2022년 기준 호주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644억 호주 달러이고,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과 비교할 때 소폭 낮아졌음

- 2022년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631억 호주 달러, 세후 이익은 22억 호주 달러를 기록함
- 한편, 최근 5년간(2018~22년)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같은 기간 실질 GDP 성장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12〉 호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총자산, 세후 이익 변화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보험료	금액	48,345	50,265	53,188	59,131	64,430
	성장률	7.6	4.0	5.8	11.2	9.0
총자산	금액	123,961	129,767	143,892	154,932	163,144
	성장률	4.5	4.7	10.9	7.7	5.3
세후 이익	금액	3,386	3,136	73	1,683	2,194
실질 GDP 성장률		2.7	1.8	-6.7	6.1	3.4

주: 1) 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원수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 수입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APRA(2023), "Quarterly general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December 2002 to June 2023"

○ 상품별 보험료 비중은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ISR)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손해보험 중에서는 공공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수입보험료 비중은 모두 1% 미만임

- FY2023 수입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36.3%)이 가장 높고, 그 뒤로 주택보험(22.0%),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13.8%) 순임
 - FY2019 대비 FY2023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의 비중은 2.5%p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6%p 감소하였고, 주택보험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이밖에 FY2023 수입보험료 기준 전체 손해보험 대비 공공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모기지보험, 기타 손해보험의 비중은 각각 6.3%, 6.2%, 5.0%, 1.1%, 9.4%임

〈표 13〉 호주 손해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FY2019 ¹⁾	FY2020	FY2021	FY2022	FY2023
자동차보험	금액	16,274	16,738	17,746	18,997	21,505
	비중	38.9	38.2	37.3	36.1	36.3
주택보험	금액	9,030	9,567	10,395	11,415	13,017
	비중	21.6	21.8	21.8	21.7	22.0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	금액	4,716	5,330	5,912	6,943	8,170
	비중	11.3	12.2	12.4	13.2	13.8
공공책임보험	금액	2,514	2,652	3,060	3,346	3,739
	비중	6.0	6.1	6.4	6.4	6.3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금액	2,106	2,655	3,274	3,869	3,669
	비중	5.0	6.1	6.9	7.3	6.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금액	1,880	1,811	2,192	2,620	2,957
	비중	4.5	4.1	4.6	5.0	5.0
모기지보험	금액	839	966	1,343	1,169	673
	비중	2.0	2.2	2.8	2.2	1.1
기타 손해보험 ²⁾	금액	4,448	4,087	3,684	4,292	5,558
	비중	10.6	9.3	7.7	8.2	9.4
합계	금액	41,807	43,806	47,606	52,651	59,28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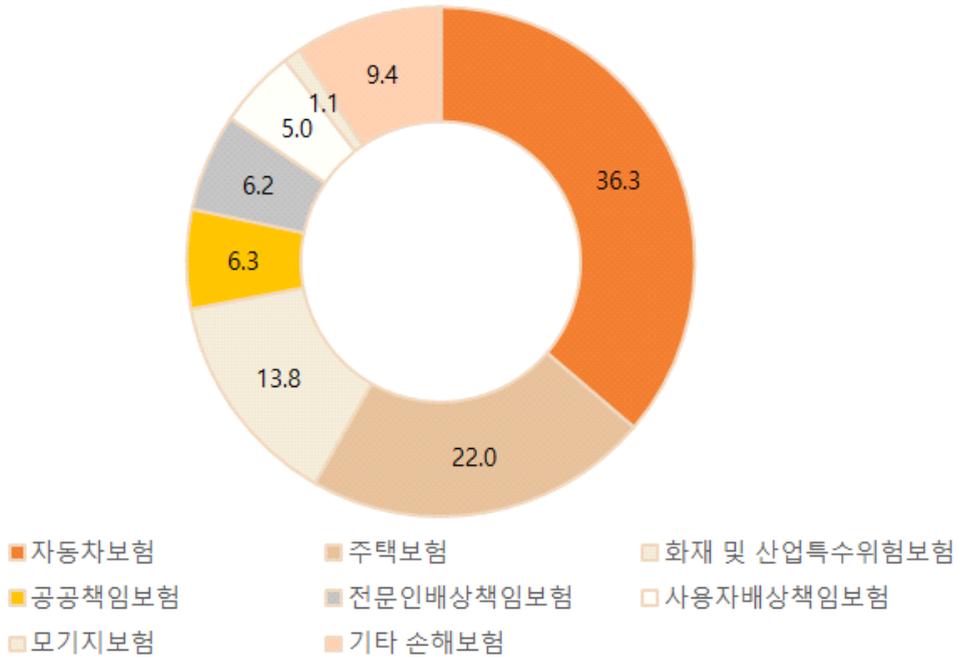
주: 1) 호주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2) 기타 손해보험은 해상, 항공, 운송 등 관련 손해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KPMG(2023), "General Insurance Industry Review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1/07/general-insurance-insights-dashboard.html>)

〈그림 2〉 호주 손해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비중(FY2023)

(단위: %)



주: 기타 손해보험은 해상, 항공, 운송 등 관련 손해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KPMG(2023), "General Insurance Industry Review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1/07/general-insurance-insights-dashboard.html>)

- 호주 손해보험시장에는 70개¹⁷⁾ 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Suncorp Insurance Holdings 및 Insurance Australia Group, QBE Insurance를 비롯한 현지 보험회사들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
-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Suncorp Insurance Holdings(16.0%), QBE Insurance(12.1%)는 각각 1, 3위를 차지하였으며, Insurance Australia Group의 자회사인 Insurance Australia Limited(15.5%) 및 Insurance Manufacturers of Australia Pty(7.1%)가 각각 2, 5위를 차지하였음
 - Insurance Australia Group은 산하 자회사들의 보험료가 통합되지 않고 있어 전체 수입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Insurance Australia Limited 및 Insurance Manufacturers of Australia Pty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호주에서 가장 큰 보험그룹임
- 그 뒤로 Munich Reinsurance(3.6%), Chubb Insurance Australia(3.5%), The Hollard Insurance(3.1%), Zurich Australian(3.1%), Auto & General Insurance(2.7%) 등이 비교적 균등한 비중으로 시장을 분배하고 있음

17) 영업 등록되었으나 영업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제외됨

- Munich Reinsurance, Chubb Insurance Australia, The Hollard Insurance, Zurich Australian 은 모두 외국 보험회사이고, Auto & General Insurance는 현지 보험회사임

〈표 14〉 호주 손해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순위	회사명	2022		2021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Suncorp Insurance Holdings ¹⁾	9,245	16.0	8,651	16.3	6.9
2	Insurance Australia Limited ²⁾	8,959	15.5	8,620	16.2	3.9
3	QBE Insurance	6,995	12.1	6,293	11.8	11.2
4	Allianz Australia	6,437	11.2	5,408	10.2	19.0
5	Insurance Manufacturers of Australia Pty ²⁾	4,095	7.1	3,920	7.4	4.5
6	Munich Reinsurance	2,077	3.6	2,119	4.0	-2.0
7	Chubb Insurance Australia	2,035	3.5	1,738	3.3	17.1
8	The Hollard Insurance	1,783	3.1	1,613	3.0	10.6
9	Zurich Australian	1,769	3.1	1,246	2.3	42.0
10	Auto & General Insurance	1,575	2.7	1,278	2.4	23.3
	합계 ³⁾	57,726	100.0	53,156	100.0	8.6

주: 1) Suncorp Insurance Holdings는 자회사인 AAI Limited를 통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

2) Insurance Australia Limited 및 Insurance Manufacturers of Australia Pty는 Insurance Australia Group의 자회사임

3) 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포함됨. 수입보험료가 작은 일부 보험회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KPMG(2023), "General Insurance Industry Review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1/07/general-insurance-insights-dashboard.html>)

○ 손해보험업 판매채널별 비중은 생명보험업과 달리 보험중개인(51.0%) 채널이 가장 높고 온라인판매 채널을 포함한 직접판매(40.5%) 채널의 비중도 높음

-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보험중개인 채널이 주요 채널이며 2018년과 비교할 때 2021년 보험중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7.5%에서 51.0%로 확대됨
- 2021년 기준 원수보험료 기준 직접판매(온라인판매 채널 포함) 채널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약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는 2018년 11.0%에서 17.5%로 상승함
 - 직접판매 채널에서는 보험판매가 지점에서 콜센터로, 그리고 콜센터에서 온라인 채널(특히 모바일)로 가속화되는 장기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대리인 채널은 손해보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작지만, 호주 농촌지역에서 주로 활용되며, 보험대리인 채널을 통한 판매는 2018년 8.0%에서 2021년 5.0%로 감소함

- 방카슈랑스 채널은 손해보험회사에게 주요 판매채널이 아니며, 은행 소유 보험회사인 Commonwealth Insurance 및 Westpac General Insurance만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모기지보험을 판매함
 - 호주 은행들은 영업 관행으로 인한 평판 손상으로 자산관리, 생명과 손해보험 판매 등 비은행 금융서비스에서 퇴출되었음

〈표 15〉 호주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¹⁾ 변화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보험중개인	47.5	48.0	49.0	51.0
직접판매 ²⁾	40.0	40.5	40.55	40.5
온라인판매 ³⁾	11.0	13.0	15.0	17.5
보험대리인	8.0	7.5	7.0	5.0
방카슈랑스	4.5	4.0	3.5	3.5

주: 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접판매는 보험회사 개설하는 콜센터, 지점, 쇼핑물에 위치한 컨셉스토어 등을 포함함

3) 온라인판매는 직접판매 방식에 속하지만 최근에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서 별도로 집계되고 있음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호주 손해보험업에서는 자산운용이 금리 민감 자산과 신탁 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자산운용 구성비는 금리 민감 자산(80.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탁 자산(14.3%), 대출형 자산(3.0%), 주식(1.9%), 기타 자산(0.4%), 부동산(0.2%) 순임
- 2018년과 비교할 때 손해보험업의 운용자산 구성비는 금리 민감 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신탁 자산 비중이 감소한 반면, 대출형 자산, 주식, 부동산과 기타 자산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표 16〉 호주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리 민감 자산 ¹⁾	금액	52,578	54,429	57,974	64,331	66,690
	구성비	77.4	77.5	77.1	79.1	80.1
신탁 자산	금액	11,196	11,100	13,459	13,193	11,944
	구성비	16.5	15.8	17.9	16.2	14.3
대출형 자산	금액	2,594	2,855	2,377	2,050	2,512
	구성비	3.8	4.1	3.2	2.5	3.0

〈표 16〉 계속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리 민감 자산 ¹⁾	금액	52,578	54,429	57,974	64,331	66,690
	구성비	77.4	77.5	77.1	79.1	80.1
신탁 자산	금액	11,196	11,100	13,459	13,193	11,944
	구성비	16.5	15.8	17.9	16.2	14.3
대출형 자산	금액	2,594	2,855	2,377	2,050	2,512
	구성비	3.8	4.1	3.2	2.5	3.0
주식	금액	1,477	1,324	889	1,127	1,623
	구성비	2.2	1.9	1.2	1.4	1.9
부동산	금액	105	119	116	120	203
	구성비	0.2	0.2	0.2	0.1	0.2
기타 자산 ²⁾	금액	446	435	405	476	307
	구성비	0.7	0.6	0.5	0.6	0.4
합계	금액	67,962	70,261	75,221	81,296	83,27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금리 민감 자산은 예금, 금융회사채, 국채 등이 포함됨

2) 기타 자산은 펀드 등 금융상품을 포함함

자료: APRA(2023), "Quarterly general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December 2002 to June 2023"

IV

시사점

- 호주는 효과적인 인구·이민 정책과 더불어 1차 산업과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 공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자연재해 위험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외부적인 성장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호주는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으로 이민 정책에 따른 꾸준한 인구 유입이 타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는 풍부한 광물 및 농·축산물을 바탕으로 한 1차 산업의 발전과 1차 산업에서 창출되는 대외 수요 증가 및 투자 확대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금융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다만, 잦은 대규모 산림화재, 1차 산업에 치중된 수출구조, 높은 대외자금 조달 및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경제성장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호주의 친기업 환경은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이어 금융 및 보험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민간기업 인프라 촉진이 기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으로 전기차 수요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최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선진 금융 국가로서 입지가 더욱 다져질 것으로 예상됨
-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14위이며,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에 우호적이므로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성숙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외국인은 호주 현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자회사, 지점 형태로 보험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음
 - 다만, 호주 손해보험시장은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약화 등으로 2015년 이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저자약력

김윤진 City, University of London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oonjinkim@kiri.or.kr

이소양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lishaoyang@kiri.or.kr